한국마트협회 제안서 · 2026

MartLink

회원 마트의 데이터를
협회가 중앙에서 잇는 플랫폼

제각각인 POS 상품명을 정부 표준품목에 잇고, 농할 집행·정산과 aT 전송, 소비자 가격비교, 전단지, 결제를 하나의 원장 위에 세웁니다.

농할 집행·정산 | 알뜰소비플랫폼 | 전단지 | 마트페이



제작 한국마트협회

EXECUTIVE SUMMARY

이 제안이 협회에 드리는 네 가지

협회가 고르는 것은 「더 좋은 POS」가 아니라, **회원 전체를 협회가 주인인 채로 참여시킬 플랫폼**입니다.

01 모든 POS

비협조 POS 까지 담는다

협조 벤더에는 **연동 API** 를 제공합니다. 비협조 벤더에는 **협회가 적용을 요청**하고, 거절되면 **마트가 읽기 전용 수집기를 실행**합니다.

02 정확한 정산

자동은 제안, 승인은 사람

AI 가 상품명을 표준품목에 잇되 **스스로 승인하지 못합니다.** 애매하면 기권하고 정산에서 빠집니다. 덜 받는 것은 고칠 수 있고, 더 받은 것은 되돌리는 데 사람이 듭니다.

03 협회가 주인

회원번호와 원장은 협회 것

회원번호 **KMA-00123** 을 협회가 한 곳에서 발급합니다. 회비·기부·서류·POS·지사가 그 번호 아래 모이고 **홈페이지도 같은 원장**을 봅니다.

04 한 데이터, 네 사업

네 서비스가 같은 줄을 쓴다

농할 · 알뜰소비플랫폼 · 전단지 · 마트페이. 한 번 넣은 행사가가 전단지에도 앱에도 쓰입니다. 정부 사업이 줄어도 나머지 축이 남습니다.

70여 개	네 역할이 쓰는 화면	**68단계**	누적된 데이터 구조 변경	**2,702건**	전부 통과한 단위 검사	**84종**	운영 서버 실측 검증

CONTENTS

차례

01 **제안 배경**
수기 공정 일곱 단계 · 세 주체의 이해 · 방식 비교

02 **POS 연동과 데이터 수집**
API 제공 · 협회의 요청 · 매장 수집기 — 3단계

03 **AI 매핑**
4단 사다리 · 승인 게이트 · 기권 · 묶음 승인

04 **농할 집행 · 정산 · aT 전송**
예산 2단 배정 · 원장 · 청구 · 전송본

05 **회원 · 회비 · 기부**
회원번호 체계 · 신청과 심사 · 투명한 장부

06 **네 가지 서비스**
농할 · 알뜰소비플랫폼 · 전단지 · 마트페이

07 **운영 기반과 추진 계획**
보안 · 검증 · 현황 · 일정 · 협회 결정 사항

가장 자세히 다룬 곳은 **02 POS 연동**입니다 — 협회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01

제안 배경

지금 협회가 엑셀과 전화로 하고 있는 일을 단계로 나누고, 어디가 병목인지부터 봅니다.

수기 공정 일곱 단계

세 주체의 이해

방식 비교 · aT 요건

전체 시스템 구성

협회가 지금 손으로 하는 일곱 단계

2·4·7번은 어느 개발사나 만들 수 있습니다. **3번만은 다릅니다** — 이종 POS 의 상품명을 정부 표준품목에 잇는 일이고, 이 플랫폼의 핵심 자산이 그것입니다.

#	현행 수기 공정	무엇이 병목인가	MartLink 가 대신하는 일
1	정부 대상품목 공지 수신	문서를 사람이 옮겨 적는다	표준품목 코드로 등록
2	마트별 할당액 배분	엑셀 수작업 · 형평성 논란	중앙 → 지사 → 마트 2단 배정, 합계 초과 차단
3	대상품목 ↔ 마트 상품코드 지정	최대 병목 — 마트마다 상품명이 다르다	AI 매핑 자동 제안 + 담당자 승인
4	마트에 통보 (공문·전화·엑셀)	누락 · 오전달	점주 포털이 자기 배정액과 소진율을 보인다
5	할인 판매 실적 수집	마트가 엑셀로 제출 · 형식이 제각각	POS 자동 수집 (API · 수집기 · 파일)
6	실적 검증 · 부정 점검	표본 검사에 의존	증빙 등급 + 이상 확인 목록 전수 점검
7	정산 청구서 작성 · 제출	재집계 · 오류 정정 반복	집계표 · 명세 · 체크섬을 한 번에 생성

! 마트 한 곳이 하루 수천 건을 팝니다. 그 줄마다 상품명이 다르고, 이것을 잇지 못하면 **집행액도 정산액도 셀 수 없습니다.**

세 주체의 이해가 한 점에서 만난다

aT 는 지금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받아 직접 정제합니다. 협회가 정제해서 보내면 aT 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 요구가 아니라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식자재마트

POS 판매 실적
진열 가격 · 행사 계획

한국마트협회

AI 매핑 · 농할 배정과 집행
부정 점검 · 정산 청구
회원 · 회비 · 기부 원장

aT · 농식품부

정제된 표준 데이터
집행 증빙

소비자 — 농할 적용가를 보고 매장 방문

협회 — 회원 데이터가 모여 구조적 자산이 된다

마트가 얻는 것

엑셀 제출이 사라지고 배정액·소진율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소비자 앱이 손님을 데려옵니다.

aT 가 얻는 것

검수 작업량이 줄고 집행률과 체감이 오릅니다. 부정수급 점검 근거가 생깁니다.

특정 POS사 플랫폼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POS사 자체 방식은 **자기 POS 매장 안에서는** 강합니다. 협회가 필요한 것은 **회원 전체**를 담는 방식입니다.

비교 축	특정 POS사 자체 플랫폼	협회 중립 통합 플랫폼 (MartLink)	aT 공고 요건
POS 범위	자기 POS 매장만	모든 POS — 협조·비협조 모두 포함	POS 유형이 달라도 연계
표준품목 매핑	담당자가 코드를 직접 입력	AI 자동 제안 + 사람 승인	품목·규격 단위 증빙
소비자 앱	자기 회원 전용 앱	누구나 쓰는 가격비교 · 농할 적용가	국민 대상 가격·할인정보
거버넌스	단일 사업자 · 단일 벤더 위계	협회 중앙 허브 · 지사 · 다소유주 중립	중앙조직 통합관리
정산	결제 건별 승인 중심	품목·규격·인당한도 증빙 + 전송본	정산 증빙 · 5년 보관
회원 차별	회원 전용	회원도 비회원도 같은 화면	유·무료 회원 차별 금지

우리는 어떤 POS 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특정 POS사 플랫폼은 다른 POS 매장을 담지 못합니다 — **포함 관계가 한쪽으로만 성립합니다.**

전체 구성 — 하나의 원장, 네 개의 창구

주소는 하나이고, **역할에 따라 보이는 화면이 갈립니다.** 접근 통제는 화면이 그려지기 전 단계에서 끝납니다.



02

POS 연동과 데이터 수집

협조하는 POS 에는 API 를, 협조하지 않는 POS 에는 협회의 요청을, 그래도 안 되면 마트의 수집기를 — 세 칸짜리 사다리입니다.

POS 마다 다른 표기

협회의 요청

3단계 사다리

매장 수집기

공개 API 와 규격

연동 상태 감시

같은 배추 한 포기가 POS 마다 다르게 적힌다

그리고 **어느 POS 도 「이것이 표준품목 배추다」 라고 스스로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줄을 잇는 일이 지금 협회 담당자가 눈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이포스

협조 본사 서버 연동

배추(고랭지) 1포기

괄호 · 띄어쓰기

익스트림포스

협조 본사 서버 연동

[농산]고랭지배추 1포기

부서 머리표

투게더스

비협조 매장 수집기

고랭지배추1포기

붙여쓰기 · 규격 축약



정부 표준품목

배추

세 표기가 모두 여기로 이어져야 집행액을 셀 수 있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세 칸짜리 사다리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3단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어야 2단계 요청에 힘이 실립니다.

1 **협조하는 POS**

하이포스 · 익스트림포스 등

협회가 연동할 수 있는 API 를 우리가 제공합니다. 벤더 본사 서버가 그 API 로 실적을 보냅니다.

→ **매장에 설치할 것이 없다**

2 **협조하지 않는 POS**

투게더스 등

우리가 **먼저 만들어 운영해 보이고**, 규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협회가 「이대로 개발·적용해 달라」 고 요청**합니다.

→ **수용하면 1단계와 같아진다**

3 **그래도 거절하면**

벤더 협조 없음

마트가 자기 매장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읽기 전용 수집기를 실행**합니다. 매장의 판매 자료는 매장의 것입니다.

→ **아무 마트도 배제되지 않는다**

1단계 — 협회 명의의 공개 연동 API

벤더가 새로 설계할 것이 없도록 **규격 문서 · 연동 창구 · 적합성 시험을 한 벌로** 제공합니다. 매장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POS 공급사
본사 서버

그 POS 를 쓰는
여러 매장을 대신해
한 곳에서 보낸다

매장 설치 0

→	**인증**	발급키로 30분짜리 세션을 받는다
←	**정책 받기**	농할 회차 · 대상품목 · 한도 · 쿠폰 코드
→	**실적 보내기**	판매 줄을 한 번에 1,000줄까지
→	**취소 보내기**	원본을 지우지 않고 반대 기입으로
→	**쿠폰 마스터**	매장 쿠폰 목록 — 판정은 협회가 한다



협회 연동 API

받은 줄마다
수락 · 중복 · 거절을
갈라서 답한다

거절에는 사유가 붙는다
— 매장 불일치 · 날짜 오류 등

연동 규격이 지키는 네 가지

규격은 공개 문서이고, 벤더가 늘어도 플랫폼은 바뀌지 않습니다 — **한 계약으로 여러 POS 를 담습니다.**

적합성 시험

같은 시험을 양쪽이 쓴다

규격 문서에 붙은 시험 도구를 **벤더가 직접 돌려** 자기 구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협회도 같은 도구로 확인하므로 「된다 / 안 된다」를 다툴 일이 없습니다.

연동 키

협회가 발급하고 회수한다

키 원문은 **발급 순간 한 번만** 보이고 저장은 해시로만 합니다. 무중단 교체가 되고, 폐기에는 **누가 · 왜** 가 남습니다. 폐기하면 다음 요청부터 거부됩니다.

중복 방지

두 번 보내도 한 번만 쌓인다

사업자번호 · 전표번호 · 라인번호로 거래 열쇠를 만듭니다. 망이 끊겨 다시 보내도 실적이 두 번 쌓이지 않으므로 벤더는 안심하고 재전송합니다.

권한 경계

선언한 POS 만 대신한다

키가 있다고 아무 매장이나 보고할 수 없습니다. **마트가 「우리는 이 POS 를 씁니다」 라고 선언한 벤더의 키만** 통합니다. POS 를 바꾸면 그 순간부터 옛 벤더는 거부됩니다.

시각 어긋남도 잽니다 — 벤더 서버의 시계가 틀리면 실적이 엉뚱한 회차로 들어갑니다. 보고마다 **시계 차이**를 기록하고, **미래 날짜의 실적은 받지 않습니다.**

2단계 — 협회가 「이대로 붙여 달라」 고 요청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로**입니다. 협회가 회원 마트를 위해 요청하면 벤더에게 그것은 **자기 고객 전체의 요구**이고,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어 운영한다

말로 된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도는 구현**이 있습니다. 「되는가」 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격을 공개한다

연동 규격과 구현이 **오픈소스**입니다. 벤더는 가져다 쓰면 되고 설계 기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요청한다

협회 명의로 **「이대로 개발·적용해 달라」** 고 요청합니다. 협회는 그 벤더의 고객 집합입니다.

수용하면

1단계로 올라간다

화면에서 그 벤더의 통로만 바꾸면 됩니다. **마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벤더가 얻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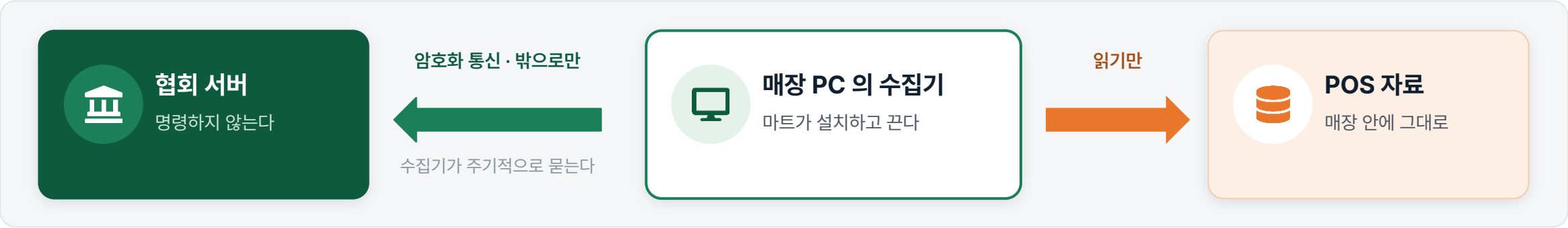
- 자기 고객 마트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 규격·구현을 받으므로 **개발 부담이 작다**
- 매장 PC 에 **남의 프로그램이 돌지 않게** 된다

협회 · 마트가 얻는 것

- 매장에 설치할 것이 없어 **운영 부담이 0**
- 벤더가 자기 일정으로 관리해 **더 안정적**
- 협회가 **벤더 중립 위치**를 유지한다

3단계 — 마트가 자기 매장에서 수집기를 실행한다

매장이 자기 매장의 판매 자료를 읽어 협회에 주는 것은 **매장의 권리**입니다. POS 프로그램을 수정·역분석하지 않고 **읽기만** 합니다.



방어 1

쓰기 기능이 아예 없다

배포되는 실행 파일에 쓰기 기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설정으로 꺼 둔다」는 켜질 수 있습니다.

방어 2

읽는 항목을 못 박았다

회원 전화번호·카드 정보는 **항목 이름조차** 프로그램 안에 없습니다. 검사 도구가 소스를 훑어 막습니다.

방어 3

계정이 읽기 전용이다

매장 DB 에 넣는 계정 자체가 **추가·수정·삭제를 거부**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방어 4

들어오는 통로가 없다

매장 PC 에 외부가 접속할 포트를 **열지 않습니다.** 원격 실행 통로가 곧 위험입니다.

수집기는 계산대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낡은 POS PC 에서도 돌아야 하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계산대를 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잠금을 걸지 않고 읽는다

계산대가 쓰고 있는 자료에 **잠금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전표는 건드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읽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물러선다

점심(11~13시)과 저녁(17~20시)에는 **읽는 간격을 늘립니다.** 계산대가 먼저입니다.

끊겨도 잃지 않는다

망이 끊기면 디스크에 쌓아 두었다가 다시 보냅니다. 디스크가 차면 **수집을 스스로 멈춥니다** — 매장 PC 를 죽이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면 멈춘다

POS 업데이트로 항목이 바뀌면 **지문이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고 멈춘 뒤 사람의 확인을 기다립니다.

마감 합계와 맞춰 본다

하루 합계가 POS 의 마감과 어긋나면 **보고하지 않고 알립니다.** 차이를 임의로 밀어 넣지 않습니다.

계산대마다 본다

계산대별 마지막 거래 시각을 보고합니다. 한 대가 **단독 모드로 떨어진 것**을 총액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수집기가 지키는 두 가지 약속

약속 하나

항목이 말없이 바뀌면 멈춘다

벤더가 협조하지 않으면 POS 업데이트로 항목이 조용히 바뀝니다. 그때 계속 읽으면 **틀린 수가 정산으로 갑니다.**

같은 변화가 여러 매장에서 동시에 보이면 벤더 업데이트, 한 곳뿐이면 그 매장 사정입니다. **협회가 벤더보다 먼저 압니다.**

약속 둘

계산대를 멈추지 않는다

매장이 한 번 멈추면 그 매장은 우리를 다시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고, 바쁜 시간에는 물러섭니다.

우리 최악의 사고는 **「수집이 멈췄다」** 여야 하고, **「매장이 멈췄다」** 여서는 안 됩니다.

POS 안에는 「정부지원」이라는 표시가 없다

그래서 수집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쿠폰 목록을 그대로 올리고, 어느 쿠폰이 농할인지는 **협회가 화면에서 지정**합니다.

859개

실제 POS 자료의 쿠폰을
전수로 조사

12건

그 가운데 한도형 —
전부 농할 쿠폰

97.2%

새 귀속 규칙의 영수증 대사
일치율 (1,001건 중 973건)

왜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는가

모든 할인을 농할로 보고하면 **국고가 더 나갑니다.** 덜 받는 것은 고칠 수 있고, 더 받은 것은 되돌리는 데 사람이 듭니다. **지정 전에는 지원액이 0** 입니다.

쿠폰 하나가 거치는 세 상태

대기
수집기가 올린 그대로. 아직 아무도 보지 않았다

농할로 지정
협회 담당자가 지정 — 이때부터 지원액이 잡힌다

농할 아님
「보았고, 아니다」 — 안 본 것과 구분된다

지정하지 않아 놓치고 있는 금액도 누적해 보여 줍니다 · 수집기는 사람이 지정한 칸을 덮어쓰지 못합니다 · 지정마다 누가·언제·왜 가 남습니다

수치 출처 — POS 실제 자료 이관 산출물 실측

어느 POS 든 마지막 길은 늘 열려 있다 — 파일 올리기

연동이 막혀 있어도 점주가 POS 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올리면 **그 실적도 정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올리기
CSV · TSV · TXT

글자 판독
한글 인코딩 자동 감지

열 맞추기
머리글 별칭으로 찾는다

미리보기
받을 줄 · 거부할 줄

사람이 확정
확정 전엔 안 들어간다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

옛 한글 방식의 파일도 순서를 지켜 판독해 **조용히 깨지는 일**을 막습니다.

날짜를 기계에 맡기지 않는다

시간대 차이로 하루가 어긋나지 않게 직접 읽습니다. **미래 날짜는 받지 않습니다.**

없는 것과 0 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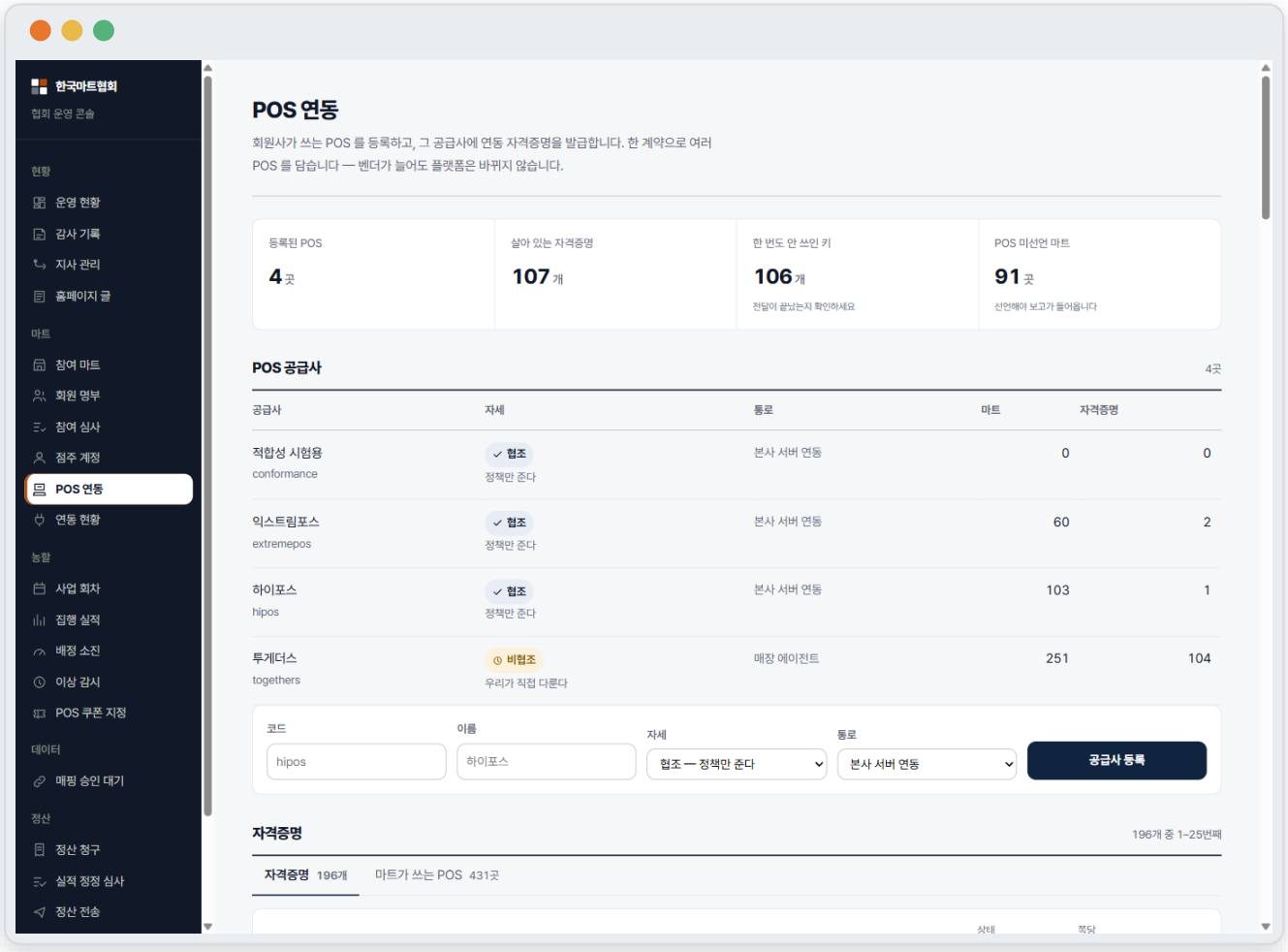
빈 칸을 0 으로 채우지 않고, **반품의 음수도 그대로** 읽습니다.

거부에는 사유가 붙는다

열·코드 누락, 날짜·수량·금액 오류. **줄마다 왜 빠졌는지** 점주가 봅니다.

실제 화면 · 협회 운영 콘솔

협회가 POS 공급사를 등록하고 키를 발급한다



자세가 화면에 적혀 있다

공급사마다 **협조 — 정책만 준다** 인지 **비협조 — 우리가 직접 다룬다** 인지가 한 칸에 적힙니다.

통로가 둘로 갈린다

본사 서버 연동은 1단계, **매장 에이전트**는 3단계입니다. 벤더가 협조로 돌아서면 같은 화면에서 통로만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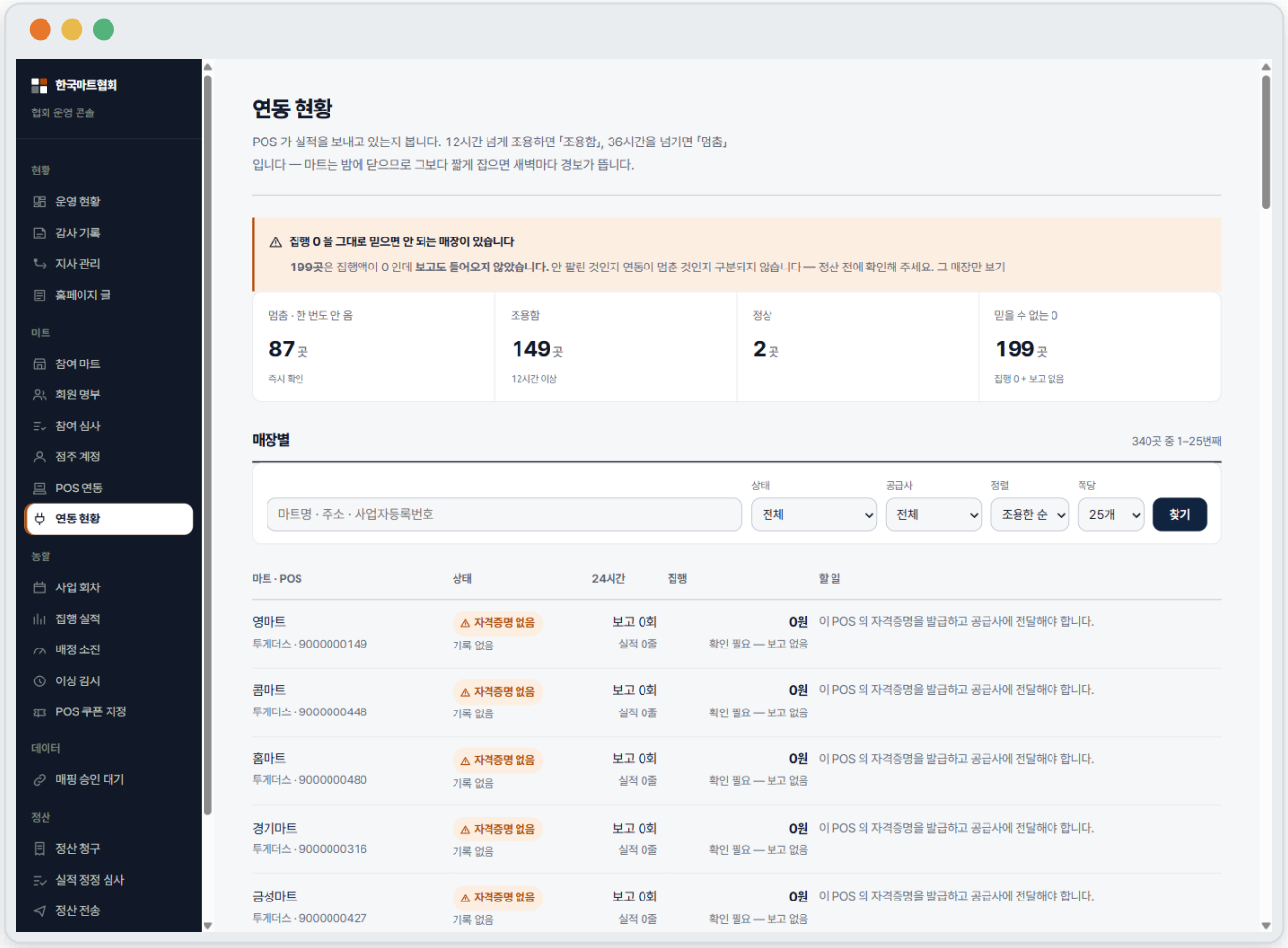
한 번도 안 쓰인 키를 센다

발급했는데 전달이 안 된 키를 따로 세어 **「전달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화면의 수치는 검증용 시연 데이터입니다

실제 화면 · 협회 운영 콘솔

집행 0 이 「안 팔린 것」인지 「연동이 멈춘 것」인지



12시간 · 36시간

12시간 넘게 조용하면 **조용함**, 36시간을 넘기면 **멈춤**. 마트는 밤에 닫으므로 더 짧게 잡으면 새벽마다 헛경보가 뜹니다.

「믿을 수 없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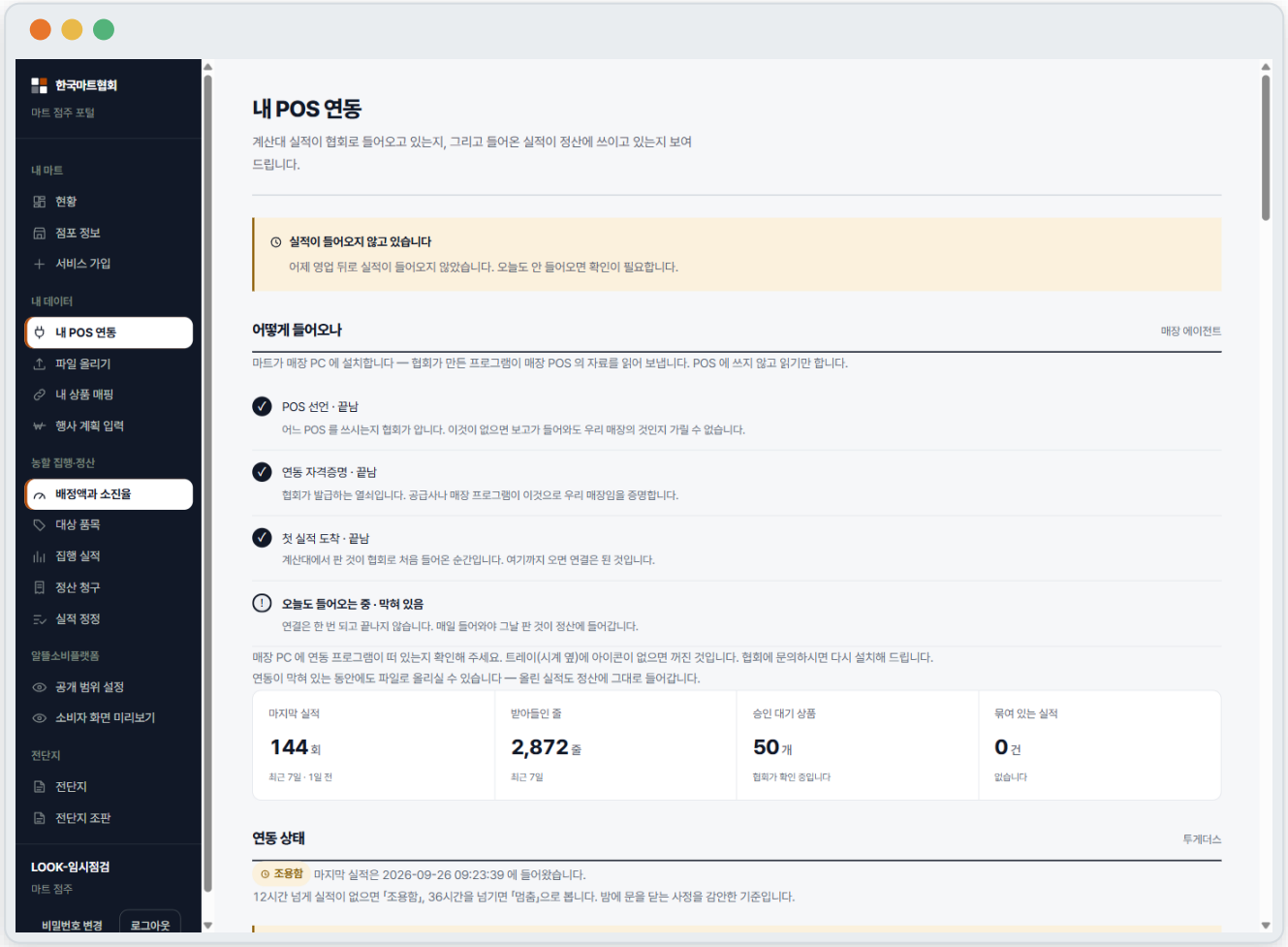
집행액이 0 인데 보고도 없는 매장입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연동 고장이 미집행으로 보고됩니다.**

상태마다 할 일을 적는다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공급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 **다음 행동**까지 적습니다. 상태만 적으면 전화가 옵니다.

실제 화면 · 마트 점주 포털

점주는 자기 연동이 어디까지 왔는지 네 걸음으로 본다



1 **POS 선언** — 어느 POS 를 쓰는지 협회가 안다

2 **연동 자격증명** — 협회가 발급하는 열쇠

3 **첫 실적 도착** — 여기까지 오면 연결은 된 것

4 **오늘도 들어오는 중** — 연결은 한 번 되고 끝나지 않는다

한 번에 할 일은 하나만 보입니다. 둘이 동시에 「해야 함」 이면 점주는 전화를 겁니다. 연동이 막혀 있는 동안에도 **파일로 올릴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안내합니다.

03

AI 매핑

제각각인 상품명을 정부 표준품목에 잇습니다. 다만 자동 판정은 제안일 뿐이고, 정산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승인합니다.

4단 사다리

승인 게이트

기권이라는 설계

묶음 승인

실측이 설계를 고친 기록

POS 원문에서 표준품목까지 — 네 단 사다리

위 단에서 답이 나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아래로 갈수록 덜 확실하므로 **신뢰도의 천장이 낮아지고**, 심사 화면은 **애매한 것부터** 담당자에게 내밉니다.

1단	정확 일치	정규화한 이름이 표준품목 이름과 그대로 같다. 두 잣대로 물어 답이 다르면 기권	1.00
2단	별칭 학습	협회가 이미 승인한 매핑에서 배운다 — 새 사전을 만들지 않는다	0.90
3단	토큰 · 유사도	품은 이름 중 가장 긴 것, 그다음 글자 유사도. 1·2위가 가까우면 기권	0.80
4단	AI	3단이 추린 후보 여덟 개 안에서만 고른다. 후보 밖의 답은 버린다	0.70

막대 — 그 단이 낼 수 있는 신뢰도의 천장

쓸수록 똑똑해진다

담당자가 승인할수록 2단의 별칭이 자랍니다. 승인 비용은 상품마다 **한 번만** 듭니다.

AI 는 밤에 한 번만

수집 중에는 AI 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남은 것만 훑어 **비용과 지연이 없습니다.**

자동 판정은 제안일 뿐, 승인은 사람이 한다

틀린 매핑은 화면의 오류가 아니라 **잘못된 정산 청구**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이 승인이 성립할 수 없게 세 겹으로 막았습니다.

첫째 겹 · 프로그램

사다리는 「승인」을 만들 수 없다

자동 판정이 낼 수 있는 값은 **제안** 또는 **기권** 둘뿐입니다. 정산에 쓸 수 있는 상태도 **승인 하나뿐**이어서, 새 상태가 생겨도 「쓸 수 있다」로 새지 않습니다.

둘째 겹 ·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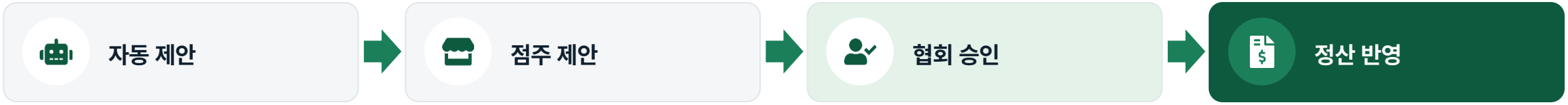
사람이 없으면 저장이 거부된다

「승인인데 승인한 사람이 없는 줄」은 **저장 자체가 거부**됩니다. 기권·기각된 줄에는 **목적지 품목이 남지 않습니다** — 남으면 다음 계산이 주워 씁니다.

셋째 겹 · 권한

점주는 제안만, 협회가 승인

점주는 상품을 가장 잘 알지만 **지원금이 걸린 이해관계자**입니다. 점주 화면에는 승인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은 잘못 갈 수 없습니다.



승인·기각·되돌리기마다 **누가 · 언제 · 무엇을 · 왜** 가 지울 수 없는 이력으로 남습니다. 판매 실적은 **판매 시점의 매핑**을 복사해 가지므로 나중에 매핑이 바뀌어도 지난 정산의 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배추 1.2k / 8입」을 우리는 일부러 읽지 않는다

1.2kg 짜리 한 봉지인가, 8입들이 한 상자인가 — **여덟 배가 갈립니다.** 추측해서 읽으면 정산 수량이 여덟 배로 틀립니다.



94.8만 줄

실제 규격 표기를 전부 넣어 잰 결과 — 읽음 936,327줄 · 기권 12,322줄

기권한 글자는 두 종류뿐

「5~6입」 — 5개인가 6개인가

「1.2kg/8입」 — 무게인가 개수인가



오답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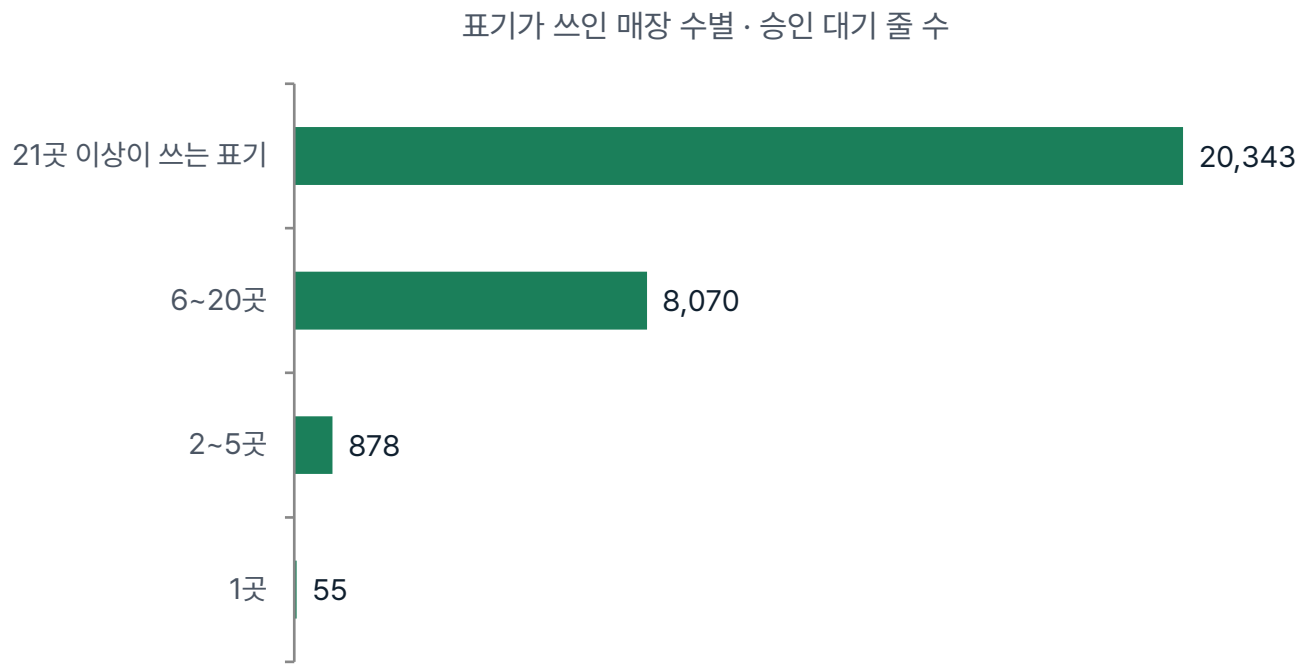
담당자가 승인한 1,014줄을 사전에서 하나씩 빼고 다시 물은 결과

못 읽은 것이 정확히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맞힌 비율보다 **틀리지 않는 것**을 먼저 지킵니다 — 기권한 줄은 심사 화면에 서고 사람이 봅니다.

측정 환경 — 개발 환경 실측 (2026-09-22)

같은 표기는 한 번만 승인한다 — 묶음 승인

전국에서 같은 글자로 들어온 상품은 묶어서 한 번에 봅니다. 담당자의 손이 **줄 수만큼이 아니라 묶음 수만큼** 듭니다.



29,346줄 승인을 기다리던 제안

1,683묶음 같은 표기 · 같은 규격 · 같은 제안

평균 17줄 한 번 승인에 처리되는 양

묶음의 열쇠는 **완전 일치**입니다 — 원본명·규격·제안 품목이 글자 그대로 같고 전부 「제안」 상태일 때만. 기권한 줄은 구조적으로 묶음에 들어올 수 없고, 잘못 승인했으면 **24시간 안에 묶음째 되돌립니다.**

측정 환경 — 운영 서버 · 검증용 시연 데이터 (2026-09-26)

실측이 설계를 고친 두 번의 기록

추측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고, 가설이 틀렸으면 가설을 버립니다.

괄호는 원산지가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가설	처음에는 괄호 안을 원산지 표기로 보고 지웠습니다.
실측	표준품목 310개 중 **164개가 60묶음으로 뭉개져** 색인에서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첫 측정 맞힘 47.1%.
고친 것	괄호를 남기는 둘째 잣대를 더해 **둘 다로 묻고, 답이 다르면 기권**

「대파 중 1단」 사건

가설	품은 이름이 원본을 40% 덮으면 고르도록 손으로 정했습니다.
실측	「대파」가 **정확히 40%** 라 경계를 통과해, 사람이 「대파 중품」이라 한 것을 「대파」로 골랐습니다.
고친 것	실 데이터로 다시 골라 **50%** — 이 장치를 끄면 오답이 158건

04

농할 집행 · 정산 · aT 전송

회차를 열고, 예산을 나누고, 실적을 모으고, 청구를 굳혀 aT 로 보내기까지 — 돈이 나가는 길에는 사람과 관문이 서 있습니다.

여덟 걸음

예산 2단 배정

지울 수 없는 원장

정산 청구

이상 확인 목록

aT 전송본

회차 개설에서 전송 장부까지 여덟 걸음

각 걸음은 건너뛰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자리에는 반드시 사람이 버튼을 누릅니다** — 매핑 승인 · 배정 확정 · 정산 청구 제출.

1

회차 개설

기간 · 할인율 · 1인 한도 · 총예산

2

대상 품목 지정

품목별 할인율이 기본값을 덮는다

3

배정 확정

중앙 → 지사 → 마트 · 사람이 확정

4

실적 수집

API · 수집기 · 파일

5

정산 청구

회차 × 마트 × 기간 = 청구서 하나

6

무결성 관문

어긋나면 돈 나가는 문이 닫힌다

7

전송본 생성

통째로 얼리고 체크섬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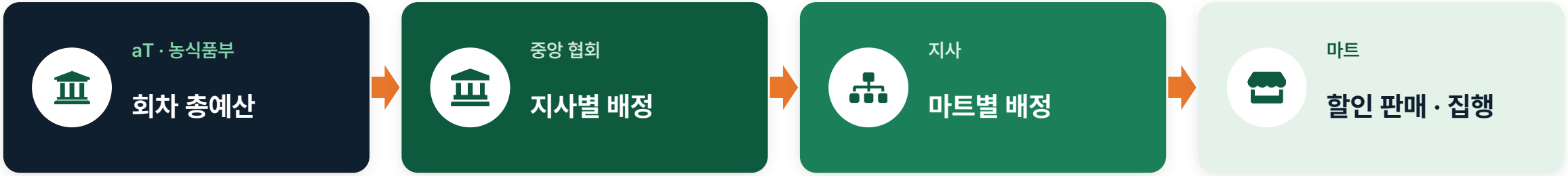
8

전송 장부

보낸 것도 실패한 것도 남긴다

예산은 두 단으로 내려가고, 합계가 새지 않는다

회차 총예산 하나만 보면 한 지사가 다른 지사 몫까지 끌어 써도 전국 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사 단이 따로** 있습니다.



시스템이 항상 지키는 식

마트 배정의 합 (한 지사 안) ≤ 그 지사의 배정 ≤ 회차 총예산

동시에 확정해도 안전

두 담당자가 같은 순간 확정해도 **합계가 예산을 넘지 못합니다.**

과거는 그때의 지사에

마트가 지사를 옮겨도 지난 배정의 **책임 소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사는 자기 관할만

목록뿐 아니라 **상세 화면과 처리 경로**까지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중앙만 하는 일

지사 관리 · **aT 전송** · POS 키 발급 · 홈페이지 편집

실적 원장은 고칠 수도 지울 수도 없다

정산의 근거는 나중에 바뀌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온 줄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 기입**으로 바로잡습니다.

더하기만 한다

수정·삭제를 데이터베이스가 막는다

권한 회수만으로는 관리자를 막지 못합니다. 실적 원장에는 **관리자 계정으로도 지나갈 수 없는 잠금**을 걸었습니다.

들어올 때 지문

그럴듯하게 바뀐 한 칸까지 잡는다

장비 결함은 **검사를 통과하는 손상**을 냅니다. 줄이 들어오는 순간 지문을 옆 표에 적어, 합계 대조로는 못 잡는 변조를 잡습니다.

매일 전수 재검

어긋나면 돈이 나가지 않는다

매일 새벽 **앱과 다른 식으로** 다시 셉니다. 36시간 넘게 검사가 안 돌아도 문은 닫힙니다. **끄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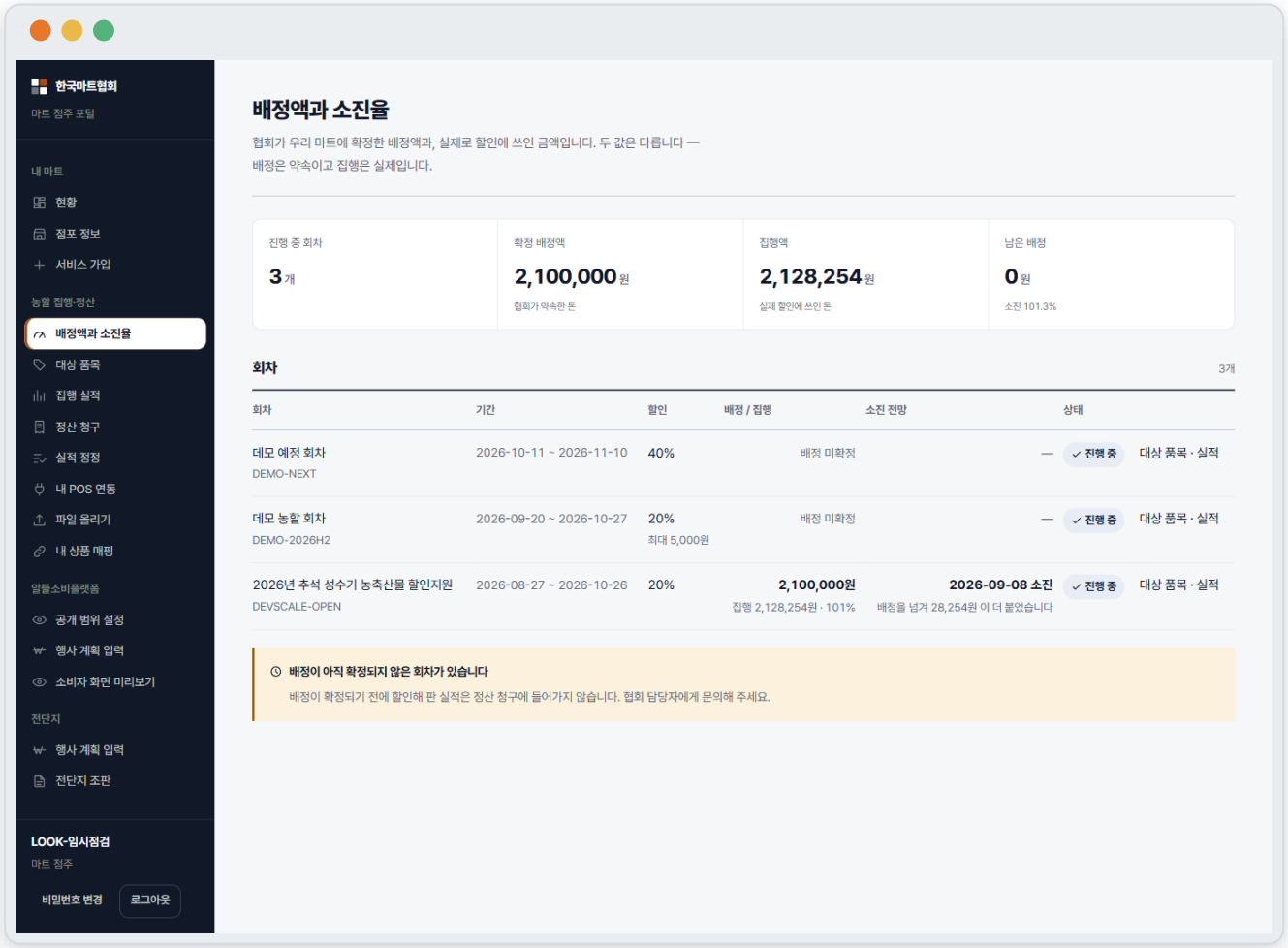
714만 행 · 16초

정기 검사가 모든 칸을 풀어 읽는 시간

이 관문은 **실제로 손상을 잡았습니다.** 원장 26,696줄과 집계 26,697줄이 **2,280원** 어긋난 것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 정산이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실제 화면 · 마트 점주 포털

점주가 전화하지 않고 자기 배정액을 본다



「배정은 약속이고 집행은 실제입니다」

두 값이 다를 수 있음을 화면이 먼저 말합니다. 100% 를 넘으면 **얼마가 더 붙었는지**까지 적습니다.

팔기 전에 알린다

「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판 실적은 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분쟁이 될 일을 **미리** 말합니다.

남의 마트는 볼 수 없다

모든 조회가 마트 식별자를 **필수로** 받습니다. 기본값도 선택 인자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이 왜 빠졌는지를 청구서가 스스로 말한다

마트는 「우리 실적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를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숨기면 그 질문이 **전화로** 옵니다 — 그게 지금 협회가 하는 일입니다.

정산에서 빠지는 사유	점주 화면에 적히는 다음 행동
매핑이 승인되지 않았다	상품을 표준품목에 이어 협회 승인을 받는다
회차 대상 품목이 아니다	이번 회차 대상 목록을 확인한다
농할 서비스가 켜져 있지 않다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는다
확정된 배정이 없다	협회 담당자에게 배정 확정을 문의한다
이미 다른 청구서에 들어갔다	이중 청구를 시스템이 원천 차단한다
할인이 없거나 정정되었다	정정 내역을 확인한다



배정을 넘겨 청구되지 않는다

중간 정산을 거듭해도 합이 배정을 넘지 않게 **상한을 청구서 머리에 얼려** 둡니다.



집계는 제출 시점에 굳는다

제출 뒤 매핑이나 배정이 바뀌어도 **청구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지급 뒤에는 상계로

돈이 나간 뒤의 정정은 **다음 청구에서 차감**합니다.

청구서에는 **제외 건수 · 제외 금액 · 사유별 건수**가 함께 실립니다. 가장 큰 청구 실측 — **146,715줄 · 5억 4,949만원**을 접는 데 0.7초.

부정 점검 — 판정이 아니라 확인 목록

화면의 글자가 「부정 마트」 가 되는 순간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칸도 「적발」 이 아니라 「확인」 입니다.

무게 60

계획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낸 값과 판 값이 다르다

무게 50

할인율을 넘겨 지원받았다

돈이 나간 자리

무게 25

계획했는데 안 팔렸다

팔 수 있었던 경우에만 센다

무게 15

정상가를 부풀렸다

할인 폭을 키우려는 신호

세 가지 판단을 남긴다

문제없음 · 주의 · 정산에서 뺌. 뺐다면 사유가 필수이고, 판단이 바뀌면 고치지 않고 **새 줄**을 적습니다.

한 번 확인이 면죄부가 아니다

새 신호가 켜지거나 점수가 크게 오르면 **다시 목록에 올립니다.** 숨고 싶은 마트가 노리는 자리를 없앱니다.

셀 수 없는 것을 센 척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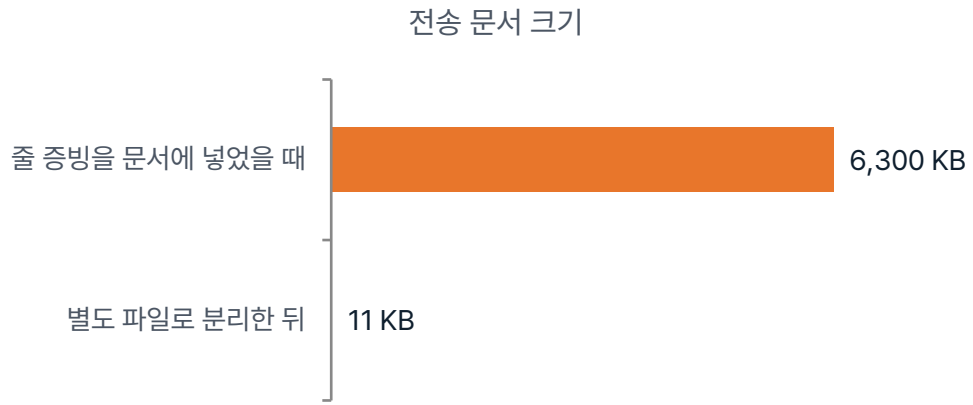
POS 가 살아 있고 승인된 매핑이 있을 때만 셉니다. 이 조건을 넣자 헛신호가 **1,332줄 → 763줄**로 줄었습니다.

운영 실측 (2026-09-22 · 심은 표본 기준) — 줄 단위 재현율 85.7% · 정밀도 35.3%. 절반 이상이 헛신호이므로 **사람의 확인이 전제**입니다.

aT 전송 — 전송본까지는 완성, 기관 API 는 규격을 기다린다

내부 표준 문서를 먼저 확정해 두었습니다. aT 가 요구하는 모양이 정해지면 **그 모양으로 바꿔 주는 층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 청구를 얼려 전송본으로 만든다	완성
✓ 문서 체크섬을 붙인다 — 받는 쪽이 대조한다	완성
✓ 줄 단위 증빙을 별도 파일로 낸다	완성
✓ 내려받아 제출한다 (파일 채널)	완성
✓ 보낸 것 · 실패한 것을 장부에 남긴다	완성
⏳ **aT 기관 API 로 직접 전송한다**	규격 미확정



「준비 중」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다리면 열린다」로 읽힙니다. 화면은 **「전송 규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적고, 그 채널로 보내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협회가 aT 에 확인해 주실 것 — 전송 주소 · 항목 정의 · 인증 방식 · 전송 주기 · 정정 절차 · 마트 식별자를 실명으로 보낼지 여부

05

회원 · 회비 · 기부

협회의 중앙화는 회원 명부에서 시작합니다. 회원번호 하나로 모두를 부르고, 돈에 닿는 기록은 지워지지 않게 남깁니다.

회원이 1차 축

회원번호 KMA

신청과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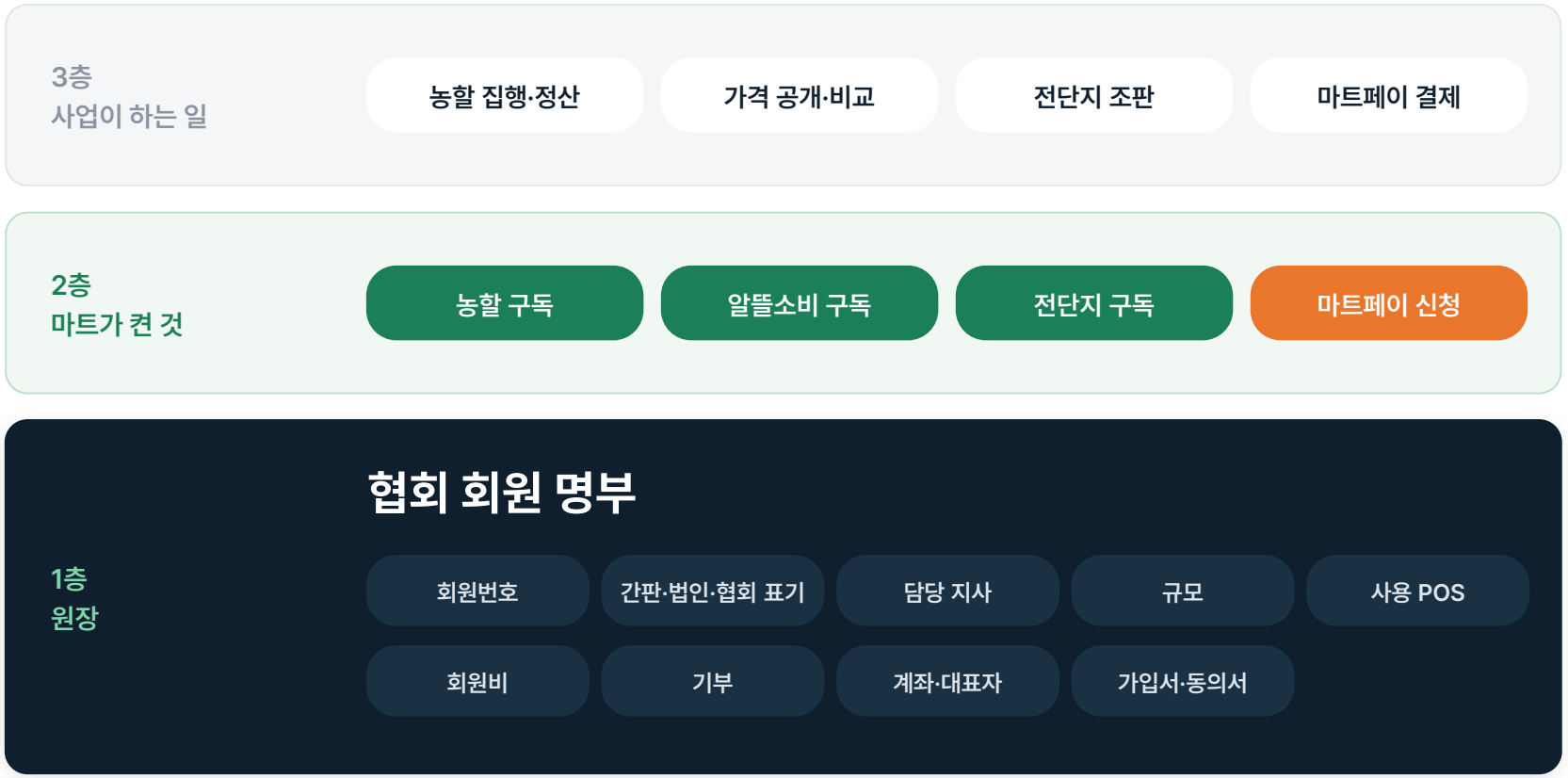
회비와 기부

네 가지 축

감사 이력

협회 콘솔의 1차 축은 사업이 아니라 회원이다

회원인데 농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는 회원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그 위에 따로 켜는 선택**입니다.



회원 명부가 원장

자격·회비·기부·서류·POS 를 **한 회원 아래**에서 봅니다.

심사는 (마트 × 서비스)

같은 마트의 농할은 승인하고 전단지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하나, 화면은 둘

홈페이지도 같은 원장을 봅니다. 둘로 두면 갈리고, 갈린 것은 **회비를 청구한 뒤에** 압니다.

협회가 발급하는 회원번호 하나로 모두를 부른다

지금 마트를 부르는 코드는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 엑셀의 행 번호이거나 담당자의 기억입니다. 그것이 일관성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회원번호

KMA-00123

단위는 **간판**입니다. 임대 매대가 셋 있는 마트도 회원 하나이고, 정산 서류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바꾸지 않는다

상호·사업자·지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저장이 거부됩니다.

회수하지 않는다

탈퇴한 번호를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5년 뒤 감사에서 다른 마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 곳에서만 만든다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면 갈립니다. 발급은 원장 한 곳에서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회원 코드로 쓰면 안 된다

양도·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이어야 합니다.

마트를 부르는 이름은 셋이다

이름	예	어디에 나가나
간판 상호	한마음마트 분당점	소비자 앱 · 지도 · 전단지
법인 상호	주식회사 한마음유통	정산 · 세금계산서 · aT 제출
협회 표기	한마음(분당)	공문 · 회원 명부 · 통계

협회 표기는 **비워 둘 수 있습니다.** 다 채우라고 하면 담당자가 아무 값이나 넣고, 틀린 이름이 공문에 나갑니다. 대표자명과 담당자명도 **다른 칸**입니다 — 한 칸에 몰면 지원금이 점장 이름으로 나가 은행이 되돌립니다.

마트의 참여 신청에서 이용 시작까지

신청은 누구나 로그인 없이 넣습니다. 협회는 **서비스마다 따로** 심사하고, 승인 순간 회원번호가 그 매장의 것이 됩니다.

1

신청

마트

상호 · 사업자번호 · 담당자 · 지역 · 사용 POS · 원하는 서비스와 동의

2

심사

협회 · 지사

서비스마다 확인 사항이 다르다. 두 담당자가 동시에 눌러도 한 번만 처리

3

승인 · 반려

협회 · 지사

반려에는 사유가 필수. 반려와 해지는 다른 상태다

4

계정 · 키 발급

협회

점주 계정과 POS 연동 키. 원문은 한 번만 보인다

5

이용 시작

마트

점주 포털에 가입한 서비스의 메뉴만 열린다

협회가 대신 접수할 수 있다

전화·공문으로 온 신청도 **같은 길**을 탑니다.

중복 신청을 그 자리에서 막는다

같은 사업자번호는 동시에 와도 **하나만** 섭니다.

마트가 진행 상황을 본다

어디까지 왔는지 **전화 없이** 조회합니다.

회비와 기부를 정산 원장과 같은 무게로 다룬다

「30만원을 매겼다」 와 「20만원이 들어왔다」 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한 칸에 합치면 부분 납부를 적을 수 없고, 담당자는 다시 엑셀로 돌아갑니다.

회원비

의무

- **부과 줄**과 **납부 줄**을 따로 적는다
- 밀린 금액 = 부과 합계 − 납부 합계
- 오래된 부과부터 메워 **밀린 기간**을 센다
- 더 낸 돈(과납)을 0 으로 깎지 않는다
- 정정은 고치지 않고 **반대 갈래의 줄**로

기부

자발

- **현금**과 **물품**을 가른다 — 물품은 무엇인지 필수
- **기부금영수증 번호**를 함께 적는다
- 해마다 집계한다 — 영수증이 해 단위
- 취소는 지우지 않고 **별도 기록** · 사유 필수
- 미래 날짜의 기부는 저장되지 않는다

왜 한 장부에 몰지 않았나

한 표에 넣으면 **「미납」 계산이 기부까지 세어** 밀렸다고 말합니다.

미납은 사실이지 판정이 아니다

자격을 자동으로 끊지 않습니다. 끊을지는 협회 규정이 정합니다.

고치거나 지우는 길이 없다

회비도 기부도 **더하기만** 됩니다. 5년 보존 대상입니다.

폐업 · 탈퇴 · 미납 · 해지는 서로 다른 일이다

「정지」가 **폐업인지 회비 미납인지** 구분되지 않는 순간, 소비자 앱에서 그 마트가 사라져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포

폐업

묻는 것

간판이 서 있는가

상태

영업 중 · 폐업

바뀌면

소비자 앱에서 사라진다

회원 자격

탈퇴

묻는 것

협회 회원인가

상태

회원 · 자격 정지 · 탈퇴

바뀌면

명부와 회비 부과에서 빠진다

회원비

미납

묻는 것

돈이 밀렸는가

상태

미납액 · 밀린 기간

바뀌면

자동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서비스

해지

묻는 것

어떤 사업을 쓰는가

상태

신청 → 심사 → 이용 → 정지 · 해지

바뀌면

그 사업의 화면과 수집이 멈춘다

폐업은 연쇄로 내려간다

함께 닫히는 것을 **버튼 옆에 미리 적습니다.**

해지는 되돌리지 않는다

정지는 되돌리고 **해지는 새로 신청**합니다.

떠나도 지난 정산은 남는다

지급 근거는 **지우지 않고 내립니다.**

「이 표의 행은 수정되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협회의 감사 기록 화면이 회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돈과 자격에 닿는 모든 행위에 **누가 · 언제 · 무엇을 · 왜** 가 남고 **5년** 보존됩니다.

- **회원 자격** — 가입 · 정지 · 탈퇴
- **회비 · 기부** — 부과 · 납부 · 취소
- **점포 생애** — 개업 · 폐업 · 연쇄
- **서비스 구독** — 승인 · 정지 · 해지
- **지사 이동** — 어디서 어디로 · 왜
- **매핑 판정** — 그때의 품목 · 신뢰도
- **쿠폰 지정** — 지원액의 근거
- **배정 · 청구** — 확정 · 제출 · 지급
- **서류 갈음** — 가입서 · 동의서
- **홈페이지 글** — 고치기 직전 본문

고친 값과 옛 값을 함께

계좌·대표자처럼 돈에 닿는 칸은 **바꾸기 전과 후**를 둘 다 적습니다. 계좌번호는 **가려서** 적습니다.

까닭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자격 변경·폐업·해지·기부 취소는 **사유를 적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습니다.**

방어를 정기적으로 되묻는다

「못 지우게 해 두었다」를 믿지 않고 **실제로 지워 보고 막히는지** 확인합니다.

06

네 가지 서비스

마트가 신청하는 것은 넷입니다. 필요한 것만 고르고, 협회는 고른 것마다 따로 심사합니다.

농할 집행·정산

마트페이

알뜰소비플랫폼

협회 홈페이지

전단지

참여 신청서에는 네 가지가 있다

가입의 단위는 마트가 아니라 **(마트 × 서비스)** 입니다. 구독이 **무엇을 받아도 되는지**까지 정합니다 — 범위 밖은 받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받지 않습니다.

농할 집행·정산

과거 — 이미 팔린 것

배정액을 받고 할인 판매 실적을 보고해 지원금을 정산받습니다.

POS 연동 필수

알뜰소비플랫폼

현재 — 지금 진열된 가격

소비자가 주변 마트 가격과 농할 적용가를 비교하고 찾아옵니다.

품목별로 공개를 뺄 수 있다

전단지

미래 — 아직 안 판 행사 계획

행사 계획을 넣으면 지면이 조판되고 같은 값이 앱에도 쓰입니다.

POS 연동 없이도 가능

마트페이

결제 — 협회가 추진하는 넷째

신청하면 협회가 그 마트에 마트페이 적용을 진행합니다.

개발 전 · 신청부터 받는다

한 번 넣으면 두 곳에 쓰인다

전단지의 행사가가 그대로 앱의 공개가가 됩니다.

해지해도 근거는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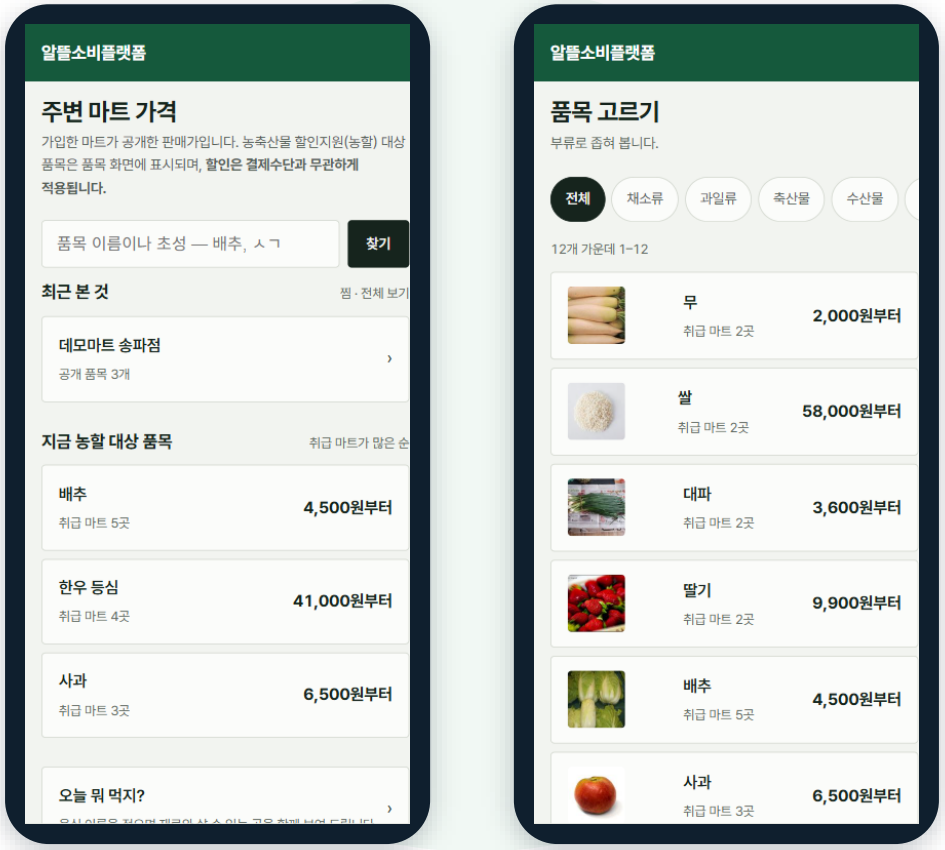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돼 있었나」 에 답합니다.

메뉴는 가입한 것만

미가입 서비스는 「가입 안내」 로 보입니다.

알뜰소비플랫폼 —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수요 채널

aT 의 실제 고통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률과 체감**입니다. 소비자가 어디서 할인하는지 모르면 예산이 남습니다.



실제 화면 — 홈 · 품목 둘러보기

이 고리가 사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상 품목 지정 → **농할 적용가**로 노출 → 주변 최저가를 찾아 방문 → 실판매 → POS 가 증빙 → **집행률 상승**

누구나 연다 — aT 의 **회원 차별 금지**에 맞춰 로그인 없이 봅니다.

결제수단과 묶지 않는다 — 묶으면 특정 카드사 사업이 됩니다.

공개 근거를 저장한다 — 「왜 이 가격이 보였나」 에 답합니다.

엠바고를 지킨다 — 공개 시각 전의 값은 읽히지 않습니다.

전단지 — 미래 데이터를 받는 창구

전단지에 실리는 것은 **POS 평상시 가격이 말해 주지 않는** 행사가입니다. 「다음 주 무엇이 얼마에 풀리는가」를 협회가 먼저 압니다.

종이 전단지를 찍는다
점주가 사진을 올린다

→

AI 가 줄을 읽는다
상품명과 행사가를 제안

→

점주가 확인한다
승인된 줄은 얼어붙는다

→

행사가가 된다
앱과 디지털 전단지에 같은 값

데이터를 쓰는 쪽

자동 조판

품목만 고르면 가격·규격·사진이 채워진 **A4 지면**이 나옵니다. 한 장 12칸, 강조 상품은 두 칸. 농할 대상은 자동 표시됩니다.

가장 민감한 데이터

엠바고

행사 계획이 새면 경쟁 마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공개 시각은 마트가 정하고**, 그 전에는 소비자 쪽이 읽지 못합니다.

지금 읽기 성적

정직하게

행사가는 10줄 중 10줄. 품목 연결은 10줄 중 3줄이고 나머지는 **기권**해 사람에게 넘깁니다. 실제 인쇄물로는 아직 재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는 마트의 **마케팅 자율권** 영역입니다. 도구로 제공하되 쓰든 안 쓰든 마트가 고르고, 안 써도 배정·앱 노출 혜택은 같습니다.

마트페이 — 협회가 추진하는 넷째 서비스

아직 개발 전입니다. 그러나 **신청서에는 지금부터** 넣습니다 — 마트가 신청하면 협회가 그 마트에 적용을 진행합니다.

모으면서 만듭니다

몇 곳이 원하는지를 **숫자로** 알아야 결제 제휴 협상이 됩니다. 신청 건수가 곧 협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입니다.

이미 서 있는 것

- **회원 원장** — 회원번호·대표자
- **사업자 단위 구분** — 돈은 사업자마다
- **계좌 정보** — 예금주 확인
- **정산 경험** — 청구·상계·지급
- **POS 연동 · 감사 이력**

협회가 정해 주실 것

- **결제 방식** — 카드·계좌이체·선불
- **제휴 상대** — 결제 대행사
- **수수료** — 마트가 아끼는 금액
- **가맹 절차** — 심사 항목과 서류
- **정산 주기** · 농할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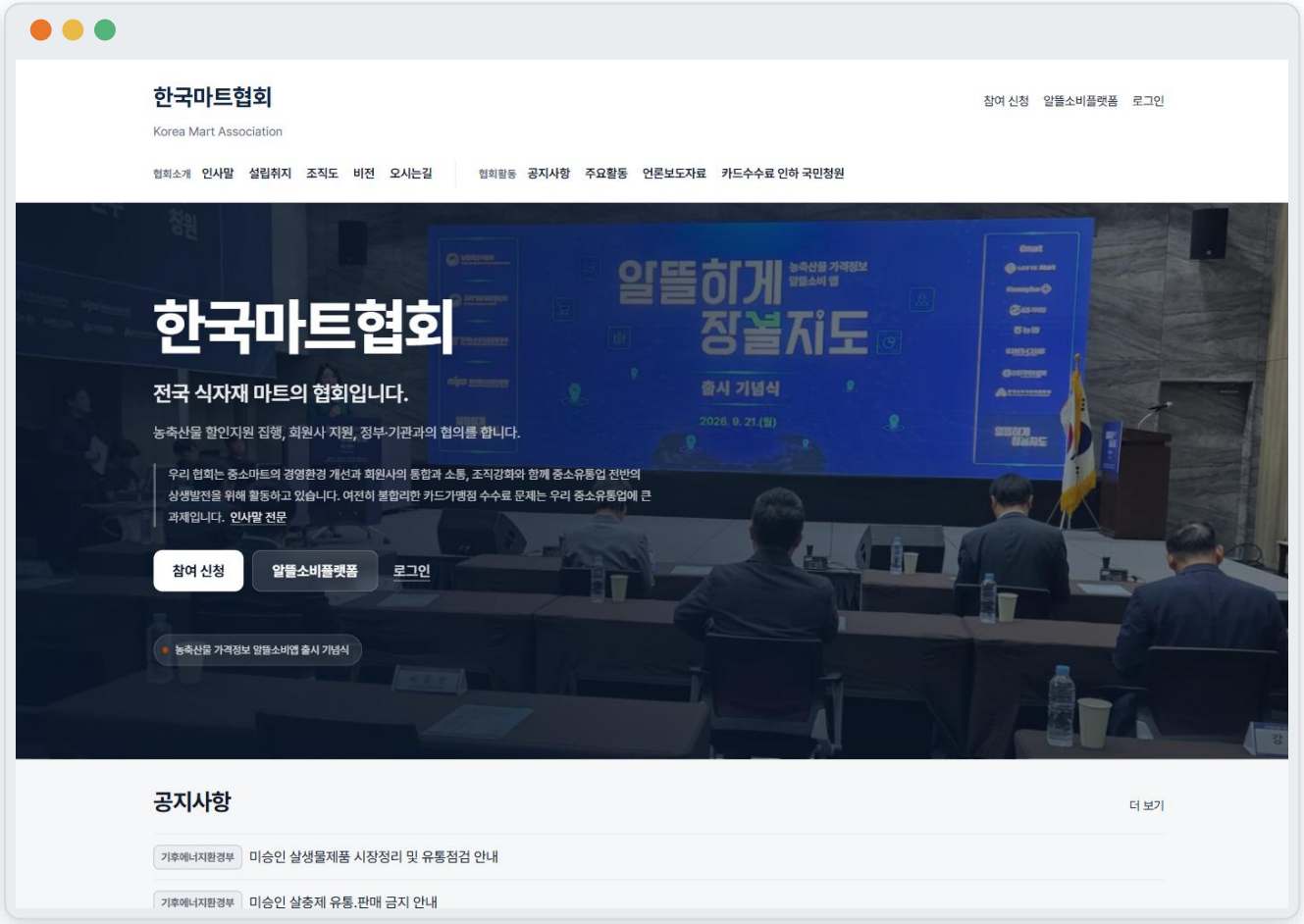
구현의 첫 걸음

구조가 이미 **(마트 × 서비스)** 이므로 넷째가 들어와도 심사·이력·해지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서비스 목록을 넓히고, 신청 화면 · 심사 · 점주 메뉴 · 협회 콘솔을 함께 고칩니다.

화면에는 「준비 중」 이 아니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실제 화면 · 협회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도 같은 원장 위에 선다



옛 사이트의 글을 옮겼다

공지·주요활동·언론보도도 **535편**과 사진을 새 사이트로 이관했습니다.

협회가 직접 고친다

콘솔에서 글과 안내 페이지를 편집합니다. 고치기 직전 본문이 남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문으로 이어진다

참여 신청 · 알뜰소비플랫폼 · 신청 진행 조회 — 홈페이지가 시스템의 입구입니다.

암호화 접속

전 구간 암호화 접속입니다. 회원의 로그인 정보가 **보호된 채** 오갑니다.

07

운영 기반과 추진 계획

시연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운영을 전제로 세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과 아직인 것을 가르고, 다음 걸음을 제안합니다.

운영 콘솔

지금의 현황

보안과 백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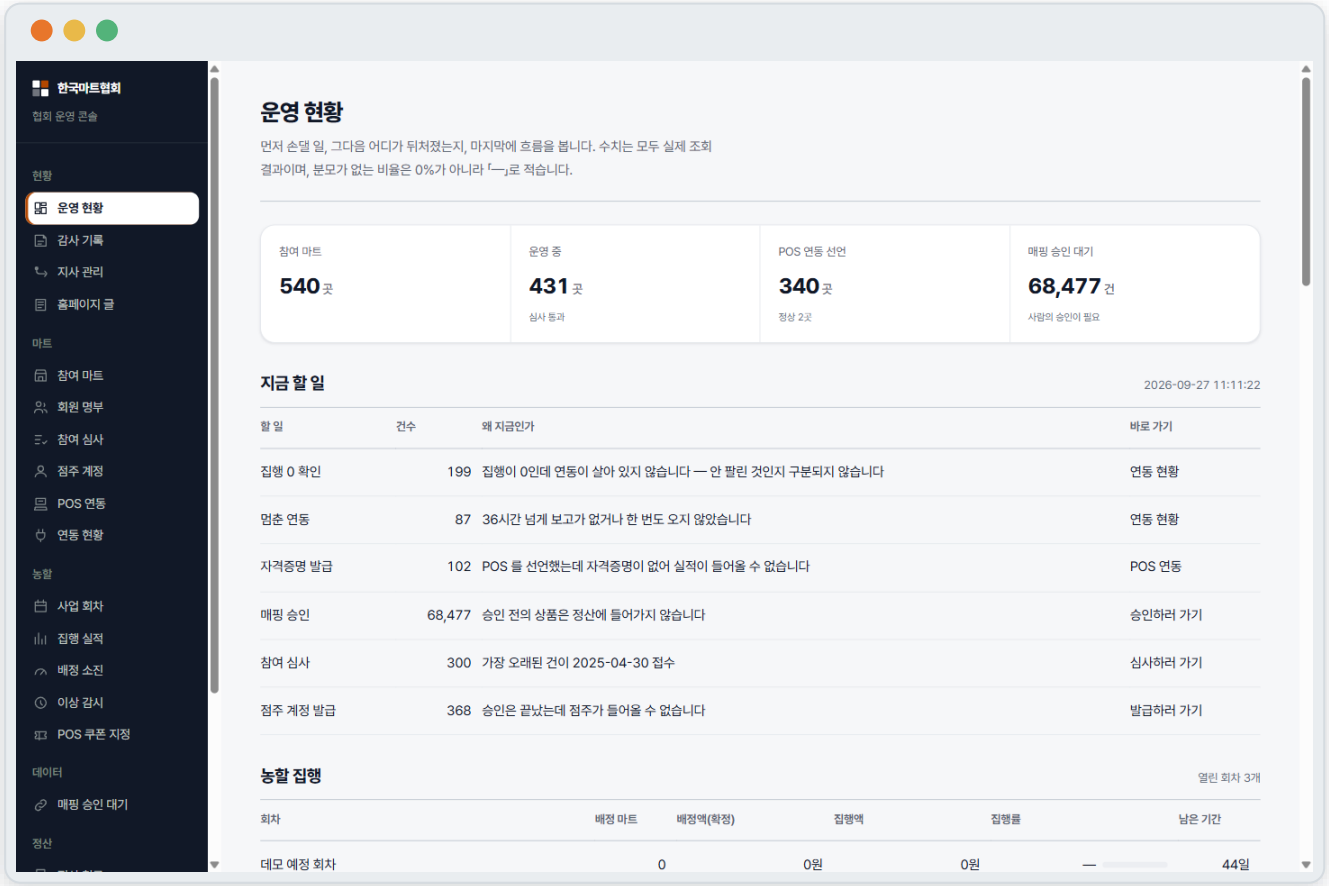
기대 효과

검증 체계

추진 단계

실제 화면 · 협회 운영 콘솔

담당자가 아침에 여는 화면 — 「지금 할 일」



먼저 손댈 일부터

수치 나열이 아니라 **할 일 목록**입니다. 건수와 함께 「왜 지금인가」를 적고 바로 가는 길을 붙였습니다.

모르는 수를 그리지 않는다

분모가 없는 비율은 0% 가 아니라 **「—」**로 적습니다. 0% 는 「측정했더니 0」이라는 거짓말이 됩니다.

알림은 꼭 필요한 것만

전송 실패 · 수집 중단 · 마감 임박. 알림을 많이 만들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화면의 수치는 검증용 시연 데이터입니다

보안 · 백업 · 관측 — 운영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것

시연은 몇 분만 버티면 됩니다. 운영은 **정산 마감일에도, 장비가 고장 나도** 버텨야 합니다.

역할 넷, 화면이 그려지기 전에 막는다

소비자 · 협회 · 점주 · 내부. 접근 통제를 화면 단계가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끝내, 가려진 화면의 내용이 새지 않습니다.

전용 데이터베이스

다른 서비스와 섞이지 않는 전용 공간입니다. 앱 계정은 **관리자 권한이 없어** 지우기 방어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백업과 복구 리허설

전체 백업 매일 · 증분 4시간마다 · 변경 기록은 **1분 단위**. 실제로 복구해 보았고 **원본과 일치**했습니다.

관측과 알림

수집 지연 · 매핑 대기 · 연동 중단 · 무결성 · 디스크를 상시 봅니다. 알림 규칙 **14개**.

개인정보는 받지 않는다

거래 자료에서 회원번호·카드 정보는 **수집 단계에서 읽지 않습니다.** 받고 지우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다릅니다.

보존 기간을 층으로 가른다

원문 90일 · 집계 5년 · **정산 증빙 5년(자동 삭제 없음)**. 전부를 5년 두지 않습니다.

품질은 말이 아니라 검증으로 지킨다

완료의 기준은 「개발 환경에서 됐다」 가 아니라 **「운영 주소에서 보인다」** 입니다. 검증은 운영 서버 안에서 돕니다.

2,702

단위 검사

규칙이 코드에 박혀 있고 전부 통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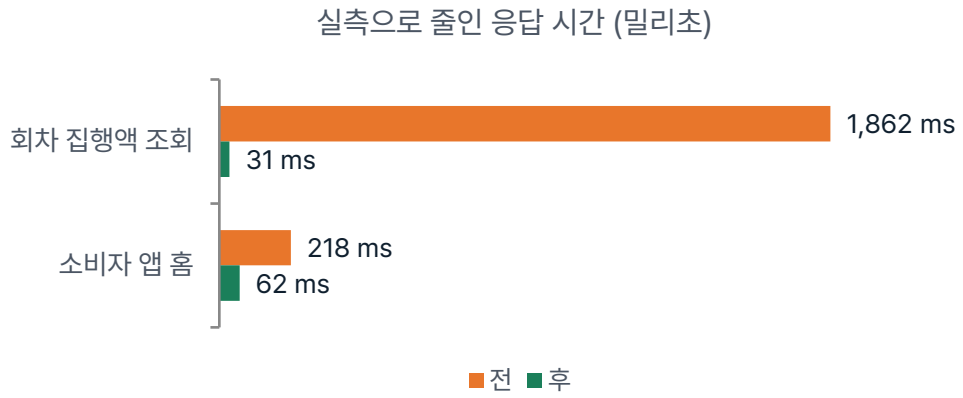
운영 검증

실제 서버와 실제 DB 에 직접 묻는다

32

규칙 지킴이

이름 · 글꼴 · 권한 · 경로를 소스에서 훑는다



「빈 검사」 에 속지 않는다

「없음」 을 확인했으면 조건을 풀어 **「있음」 까지** 확인합니다. 0 과 0 을 견주는 검사는 늘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빨간불을 끄지 않는다

막혀 있는 검증은 **일부러 빨간 채** 둡니다. 관문을 낮춰 초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든 길은 눌러 본다

단추가 서는가 · 먹는가 · 이력이 남는가 · **막아야 할 것이 막히는가.**

지금 서 있는 것과 아직인 것

제안서가 과장으로 읽히면 안 되므로 **완성과 미완을 가르고, 수치에는 측정 환경을 적었습니다.**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실 거래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결함이 아니라 아직 실 운영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의 수치는 검증용 시연 데이터이고, 실 데이터와 섞일 경로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협회 콘솔 · 점주 포털 · 소비자 앱 · 홈페이지	완성	운영 서버에서 돌고 있다
회원 명부 · 회비 · 기부 · 지사	완성	값(회비 규정 · 회원 명단 · 지사 명단)만 비어 있다
농할 회차 · 배정 · 원장 · 정산 · 무결성	완성	대형 청구 실측까지 마쳤다
AI 매핑 1~3단 · 승인 게이트 · 규격 해석	완성	—
POS 연동 API · 매장 수집기 · 쿠폰 지정	현장 대기	실 매장 파일럿이 아직 없다
AI 매핑 4단 · 지도 좌표	장비 · 키 대기	AI 는 자체 서버(GPU)로 옮긴다 · 지도는 계정 설정
aT 기관 API 전송	규격 대기	aT 전송 규격이 정해져야 한다
마트페이	정책 대기	결제 정책 결정 후 착수 — 신청부터 받는다

2026년 9월 기준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담당자의 하루입니다 — **전화와 엑셀이 화면으로** 바뀝니다.

업무	지금	도입 후
회원 식별	엑셀 행 번호 · 담당자의 기억	회원번호 KMA-00123 하나로 모든 문서
상품 지정	마트마다 상품명을 눈으로 대조	AI 제안을 묶음 단위로 승인
배정 통보	공문 · 전화 · 엑셀	점주가 포털에서 직접 확인
실적 수집	마트가 엑셀로 제출	POS 에서 자동 수집
정산 청구	재집계와 오류 정정 반복	제외 사유까지 담긴 청구서 자동 생성
회비 · 기부	수기 장부	부과·납부·영수증이 지워지지 않는 장부
감사 대응	서류를 찾아 모은다	누가·언제·무엇을·왜 가 5년 남는다

협회 — 회원 데이터가 협회의 자산이 되고, 다음 해 예산 협상의 근거 숫자가 생긴다

마트 — 제출 업무가 사라지고 소비자 앱이 손님을 데려온다

aT — 정제된 데이터를 받아 검수 부담이 준다

소비자 — 어디서 할인하는지 알고 찾아간다

효과의 크기(절감 시간·집행률 상승 폭)는 **파일럿에서 실측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추정치를 지어 적지 않았습니다.

추진 단계 — 협회가 정하시면 곧바로 움직인다

기간은 협회의 결정과 외부 협의(POS 공급사 · aT)에 달려 있어 **순서와 조건**으로 제안드립니다.

1 기반 확정

회원 명부 · 지사 명단 · 회비 규정을 넣는다

필요한 것
협회 자료 제공

결과
회원번호 일괄 발급

2 POS 협의

협회 명의로 공급사에 연동 규격을 전달한다

필요한 것
협회의 요청 공문

결과
수용 → API · 거절 → 수집기

3 파일럿

매장 몇 곳에서 실 데이터로 돌린다

필요한 것
시범 매장 선정

결과
정확도 · 절감 효과 실측

4 농할 회차 적용

실제 회차 하나를 시스템으로 집행한다

필요한 것
정부 표준품목 확보

결과
첫 정산 청구

5 확대 · 기관 연동

aT 기관 전송 · 소비자 앱 공개 · 마트페이

필요한 것
aT 규격 · 결제 정책

결과
전 회원 확대

협회가 정해 주셔야 하는 일곱 가지

기술로 답할 수 없고 **협회가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표와 화면은 서 있고 값만 비어 있습니다 —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회원인가	회원 명단은 협회가 압니다	**회원번호 일괄 발급**
회비 규정 · 금액 · 등급	규정도 금액도 협회의 결정입니다	**부과 · 미납 집계 시작**
지사 조직과 담당 지역	권한 경계는 조직 규정입니다	**예산 2단 배정 작동**
POS 공급사에 보낼 요청	협회 명의여야 힘이 실립니다	**2단계 협의 개시**
파일럿 매장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 데이터 실측**
aT 전송 규격 · 식별자 공개 수준	실명 전송 여부가 가입률을 좌우합니다	**기관 전송 개통**
마트페이 결제 정책	제휴 · 수수료 · 정산 주기	**신청 접수 · 구현 착수**

이 제안의 한 문장

어떤 POS 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며, 협회를 데이터의 주인으로 남깁니다.

특정 POS 업체의 플랫폼을 고르면 그 회원사만 참여하고 협회는 벤더에 묶입니다. 중립 플랫폼은 **비협조 POS 를 쓰는 마트까지 포함**하며, 그 포함 관계는 한쪽으로만 성립합니다.

모든 POS

회원사 전부가 참여

협회가 주인

회원번호도 원장도 협회 것

국민이 찾아오게

앱이 집행률을 올린다

정확한 정산

애매하면 기권 · 사람이 승인

투명한 장부

회비·기부·정산이 남는다

제작 한국마트협회 · 2026년 9월